

◆ IDB, 과테말라 도시빈곤퇴치 프로그램 지원에 4,680만불 대출 승인

미주개발은행(IDB)은 최근 과테말라 빈민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4,68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미주개발은행은 이미 올해 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각각 4,0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 등 2건의 대출을 승인한 바 있다.

금번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과테말라의 3개 도시의 32개 빈민촌에 거주하는 약 85,000명의 거주자들이 상·하수도, 가로등, 도로, 쓰레기 수거 및 탁아시설 개선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대출을 통해 학교시설 개

선과 개인위생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인 바, 어린이 및 소년 소녀 가장들 역시 동 프로그램의 주요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 프로그램은 사회간접자본 개선과 빈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IDB는 금번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생활환경 개선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번 대출은 상환기간 25년(거치기간 4년 포함)에 변동금리부 대출로, 현재 이자율은 6.19% 수준이다. 과테말라 정부도 52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금번 프로그램에 동참할 예정임을 밝혔다.

【金基相】